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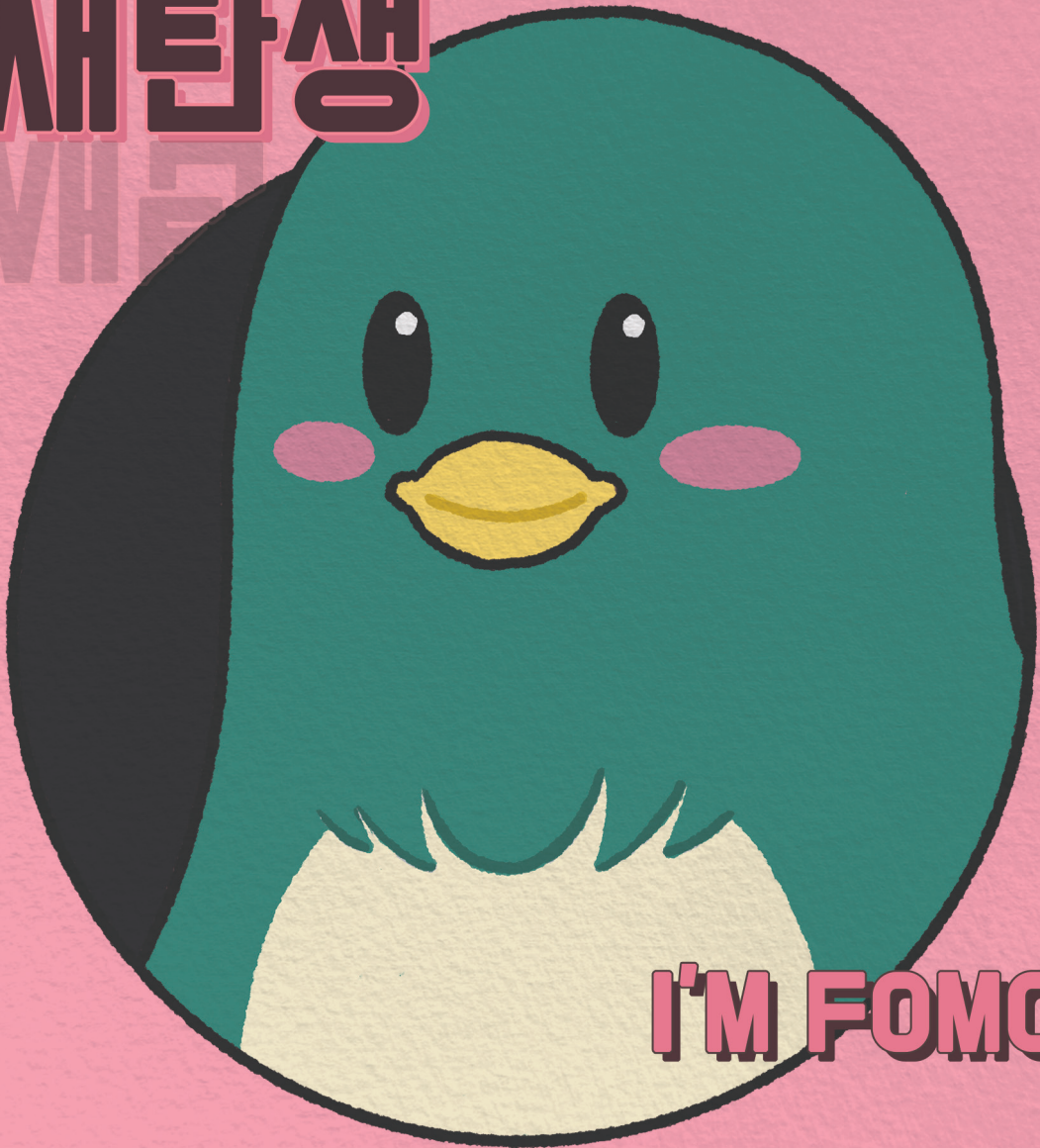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매거진

FoMo

Forced Mobilization

Vol. 18

새탄생



I'M FOMO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National Memorial Museum of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Occupation

새탐생



포모

소식지와 이름이 같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캐릭터 '포모'는
강제동원의 아픔을 극복하고
고국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입니다.

포모가 달라졌습니다

강제동원을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포모가 새로워졌습니다.
보다 쉽고 친근한, 하지만 가볍지 않은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새로워진 포모는 격월간으로 발행됩니다.



일러두기

FOMO는 일제의 강제동원을 뜻하는 Forced Mobilization의 약칭입니다.
일제강제동원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벌이기 위해
실행한 인적·물적 동원 및 자금통제를 말합니다. 일제에 의해 자행된 강제동원은
잊어서도, 잊혀져서도 안될 인권유린의 뼈아픈 역사입니다.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매거진
VOL. 18

FoMo

Forced Mobilization

04 포모 새 창간사

강제동원 국내외 이슈 소개,
풍성한 읽을 거리 있는 소식지로

05 국내외 이슈

위안부 피해자에 1억 원 배상하라

06 2020년 성과와 2021년 계획

2021년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08 언론 동향

언론에 비친 역사관

09 국내외 이슈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

10 소장 유물 소개

지워지지 않은 아픈 역사

12 강제동원 책자 일본어판 발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13 일본에서 온 편지

"이 책들은 일본에서 꼭 읽혀져야 한다"

14 강제동원을 말하다

"전범이 되어버린 조선 청년의
기막힌 사연을 아시나요?"

16 오륙도 일출과 일제강점기 지하요새

강제동원 현장 오륙도 '장자등 포진지'

18 역사관 방문기

아이와 우리역사 배우기

19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봄날, 아이들과 다시 방문하고 싶은...

20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정치적 간섭 피하러 정부지원없이
시민의 힘으로 운영

22 역사관 사용설명서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매거진

발행일 2021년 2월 28일 통권 제18호 **발행인** 김용덕 | **편집인** 박철규 | **편집위원** 김영진, 박수란, 박태성, 안덕자, 정두나,
조미숙 | **기획·편집** 김민균 | **디자인** (주)광장A&C T.051-583-8722 | **주소**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대연동 산 204-1) T 051-629-8600 F 051-629-8619 **Homepage** <http://museum.ilje.or.kr>

언택트시대 역사관의 새로운 길을 열며

강제동원 국내외 이슈 소개, 풍성한 읽을거리의 소식지로



희망찬 신축년 새해도 벌써 두달여가 지나 어느덧 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악재로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도 여전히 역사왜곡과 망언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의 정치인들로 한일관계는 차갑게 얼어 붙어 있습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내부적으로는 운영 미흡에 대한 따가운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채찍질을 자양분 삼아 우리 역사관은 전시실 환경 개선, 상설전시 유물 교체 및 재배치, 스마트 관람 서비스 구축 등 상설전시 부분개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역사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에는 한국문화정보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서로 필요한 거래를 교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임시정부의 항일투쟁과 일제의 압제에 신음하는 우리 거래의 모습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역사관은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시키고, 강제동원은 물론 더 나아가 인권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의 공유와 소통의 폭을 넓히고 그 깊이도 더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을 빨리 극복하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우리 역사관을 찾을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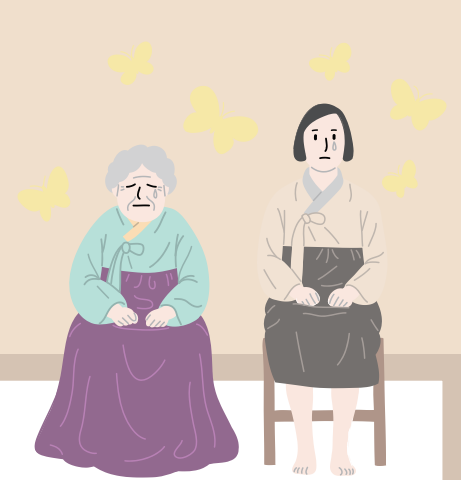
새로이 개편된 소식지 '포모'는 역사관 소식은 물론 강제동원과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이슈들을 소개하여 보다 풍성한 읽을거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2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김 용 덕



서울중앙지법의 원고 승소
정부 차원의 추가적 청구는 없을 것

위안부 피해자에 1억 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항소기한인 1월 23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국가 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확정에 맞춰 일본 외무상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일본 측은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의 여성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침을 밝혔다.

판결은 확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측에서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강제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글 | 역사관 김민균

2021년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강제동원 데이터센터 플랫폼 구축 첫발을 내딛다

1

스마트 전시 환경 구축

역사관은 2021년에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전시해설 서비스를 계속 구축해 나간다. 전시 유물의 50%인 약 190점을 교체, 재배치하고 일본어, 중국어, 영어 전시패널을 약 200개 제작 설치한다.

2

시민에 한발 더 다가가는 전시 기획

일본은 지난 2015년,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역사관은 등재 시설 중 조선인 강제동원이 확인된 7곳을 알리는 전시를 준비한다. 국내·외에서 강제동원을 주제로 활동하는 사진, 영상 등 예술 작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를 기획해 시민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3

체험 교육·시민강좌 확대

역사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개발에 적극 나선다. 우선 어린이체험관을 활용해 인형극을 상연하고, 근현대사를 주제로 체험교육을 선보인다. 더불어 성인을 대상으로 근현대사 주제 교육 '인문학 특강'과 문화, 예술 주제 교육 '시민 강좌-기다림'을 실시한다.

2020년!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설립 목적 달성

1

고객 중심 역사관 환경 개선

상설전시실 부분 정비 사업을 기획하여 스마트 전시 해설 시스템 구축, 외국어 전시패널 설치 등을 진행하였다. 어린이체험관 시설 확충과 도서관 조성을 실시하는 등 역사관 내·외부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2

온라인 시대 능동적 대응

유튜브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 영역을 확대하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를 재정비해 온라인 중심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3

유관기관 협력으로 예산절감

부산시 남구청, 행정안전부 국가 기록원, 주식회사 카카오, 한국문화 정보원 등과 유물, 전시, 콘텐츠, 방역 등 다방면으로 협업을 추진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불어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었다.

4

코로나19 상황에 신속 대응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 정책과 관계 기관 방침에 근거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선제적 사업 운영 변경을 시작으로 시설 및 온라인 환경 개선, 비대면 교육 추가 개발 운영, 사회적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5

역사관 시설 효율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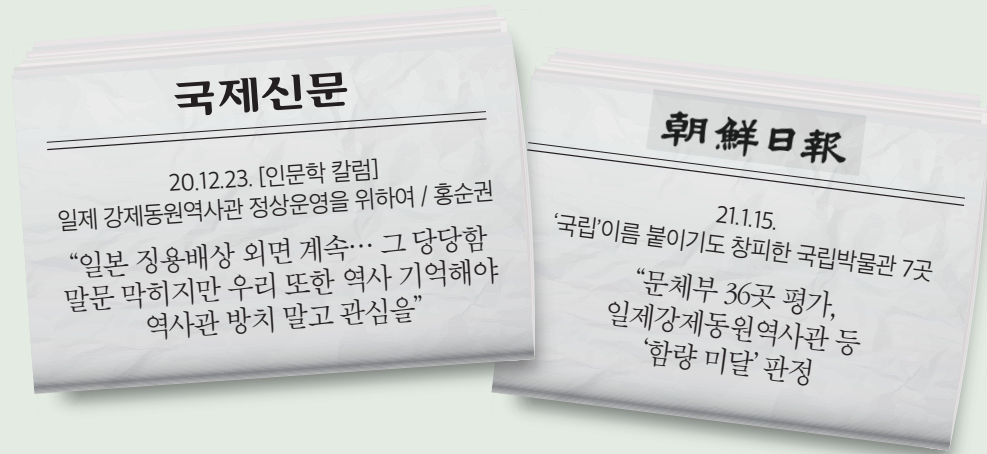
역사관은 관람객의 안전한 시설 사용을 위해 소방, 실종 아동 조치 훈련 등 각종 법정 교육을 완료하고, 시기별, 계절별 안전 사고 대비 중점 사항을 공지하고 교육하였다. 또한 태풍, 장마 등 자연 재해 대비 시설 점검과 긴급 보수를 완수하였다.

6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역사관은 관람객 뿐만 아니라 직원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샤워실, 세탁 건조실, 여성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다.

언론에 비친 역사관



최근 역사관을 향한 쓴소리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역사관은 현재 이러한 쓴소리를 자양분 삼아 인권과 평화, 시민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스마트박물관 조성 및 학예연구사 증원, 예산 증액, 역사관 사업 확대를 통한 역사관 내실화에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동아대학교 홍순권 명예교수는 2020년 12월 23일자 국제신문 칼럼을 통해 강제동원문제가 한일 간 풀어야 할 외교적 난제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스스로 뼈아픈 역사의 진상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다른 국립박물관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전문 인력의 부재 등으로 유물 및 자료수집, 시의성을 반영한 전시 개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역사관 운영 주체인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정부의 관심과 예산적 뒷받침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역사관 정상화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서

둘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역 사회와 여론의 관심도 호소하였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 15일자 기사를 통해 역사관을 ‘함량 미달’로 평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운영 주체인 정부부처에 경각심을 주고, 실질적으로 국립박물관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2020년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평가에서 점수 미달로 인증받지 못한 국립박물관 7곳을 ‘국립’ 이름 붙이기도 창피한 ‘함량 미달’로 본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미달 박물관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행정안전부), 국립태권도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 국립보세 박물관(국세청), 지도 박물관(국토 교통부), 국립경찰 박물관(경찰청), 공군 박물관(국방부), 전사박물관(국방부) 등 7곳이다. 역사관의 경우 언덕 위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문 연구 인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평가인증제 최종결과는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2월에 공식 발표 예정이며, 미인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글 | 역사관 김민균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

일본의 멈추지 않는 역사지우기 ‘산업유산정보센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해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 촉구 성명서’를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성명서의 주된 내용은 일본정부가 근대산업 유산의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 및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 등 강제동원과 관련한 역사 왜곡 문제를 조속히 시정조치하라는 것이다.

지난해 일반에 공개된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도쿄 소재)는 2015년 논란 끝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하시마 탄광 등을 포함한 ‘일본 메이지 근대 산업시설’ 총 23개 시설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들 중 7개의 시설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강제동원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고, 일본 정부는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동원된 후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한 일이 존재하며,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러나 “산업유산 보존과 인식 제고를 위한 싱크탱크”로의 센터 건립취지를 밝히고 ‘진실을 왜곡’하는 전시와 영상들로 다시금 한·일 간의 역사왜곡 문제를 조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확인한 규슈(九州)와 야마구치(山口)의 강제동원 작업장은 800개소 이상이며, 이 중 군수공장은 140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 지역의 강제동원 피해자는 3만7400여명, 현지 사망 2500여

명, 행방불명 67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표적인 강제동원 기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광업, 미쓰비시광산, 신일본제철, 스미토모, 히타치 등이다. 이 중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 등에서는 원폭 투하 시 한국인 강제동원자들을 복구 작업에 투입해 나가사키(長崎)에서만 1만여명이 사망하고 2만여명이 피폭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영화 ‘군함도’로 잘 알려진 하시마로 보내진 강제동원 징용자들은 철저히 고립된 섬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폭력, 차별, 각종 사고 등으로 이는 ‘지옥 섬’이라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이 자랑하는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의 이면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 땀, 눈물, 강요된 노동은 물론 비참한 죽음의 한까지 서려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과거사 청산과 이와 관련된 논란을 끝내기 위해 일본정부는 지금이라도 산업의 근대화라는 빛의 이면에 드리워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과 그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을 진행 중이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역시 이와 관련한 전시를 기획 중에 있다.

글 | 재단 황동준

지워지지 않은 아픈 역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이번 호에서는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된 유물을 모아 보았다. 수많은 한국인이 강제 동원되었던 7개의 시설을 포함한 23개의 일본 근대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등재 당시 본인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서달문의 근검예금통장

서달문이 일본 나가사키長崎県 미쓰비시三菱 광업 주식회사의 다카시마高島 광업소로 동원되었을 때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검예금통장이다. 예금기록은 1938년 4월 9일부터 1943년 4월 13일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부입附入 기록은 1938년 4월 9일부터 1944년 4월 8일까지 기재되어 있다.

일본이 무리한 전쟁수행으로 부족해진 군자금 軍資金을 조달하기 위해 강제저축을 실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근검예금통장은 1971년 10월 11일 대일민간청구권신고접수 제759호로 상주세무서에 제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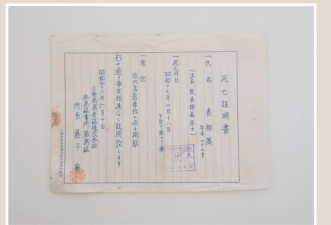


▶ 서달문의 협화회 회원장

일본 나가사키현長崎県 협화회協和會 우메가사키梅ヶ崎지회에서 미쓰비시三菱 광업 주식회사의 다카시마高島 광업소로 동원된 서달문에게 발급한 회원수첩이다. 수첩에는 개인사진·생년월일·본적지·취업 관련 사항들이 기재되어있다. 일제는 재일한인 통제를 위해 각 경찰서 단위로 협화회를 만들었고, 재일한인은 모두 회원이 되어 회원장을 지니고 다녀야 했다.

▶ 표상만의 사망증명서

미쓰비시 다카시마탄광주식회사 다사키마 광업소 하시마 탄광에서 발행한 표상만의 사망증명서이다. 증명서에는 사망연월과 사인이 적혀있다



▶ 이종호의 국민노무수첩

이종호가 1943년 2월 3일 일본 후쿠오카福岡県 오무타大牟田 국민취업지도소로부터 발급받은 국민노무수첩이다. 이 수첩에는 강제동원 된 미쓰이三井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완장을 찬 이종호의 사진과 출생·본적·거주지·취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수첩을 통해 이종호가 1943년 3월 4일까지 일본 후쿠오카현 소재 미쓰이광산(株)미이케三池탄광으로 강제동원된 후 1943년 3월 20일 홋카이도에 있는 도도로키轟 광산으로 다시 동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종호는 강제동원지인 도도로키 광산에서 사망했다.



▶ 박준화의 응징사 흉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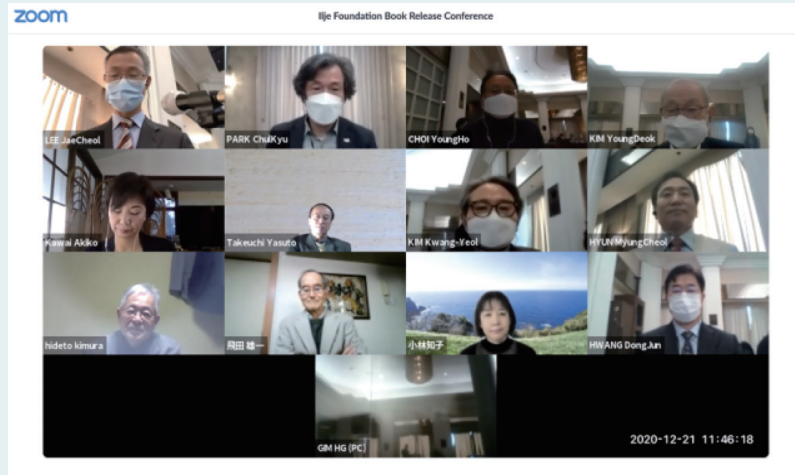
응징사는 징용에 응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1943년 개정된 '국민징용령'에 의해 강제동원된 노무자를 일컫는다. 박준화가 응징사 동원 당시 사용한 흉장이다. 박준화는 1943년 10월경부터 일본 도쿄도東京都 이시카와지마石川島 조선소 및 나가사키長崎県 나가사키광업에 응징사로 동원되었다.



글 | 역사관 반선영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언택트 출판물 발간기념회 개최



▲ 국내외 주요 인사 '줌 웨비나(Zoom webina)' 접속 모습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20년 12월 21일, '줌(Zoom)'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구술 기록집인 『들리나요?』와 한인 원폭 피해자의 증언을 담은 『내 몸에 새겨진 8월』 등 이전 활동한 위원회에서 발간한 강제동원 책자 5종의 일본어 번역판 '발간기념회'를 개최했다.

김용덕 재단이사장은 "강제동원 관련 연구 성과와 발간물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하며,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목소리가 많은 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게 본 출판 사업을 비롯한 보다 다양한 사업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글 | 재단 김희근 사진 | 재단 이병희

2020년 재단 출판사업 발간책자 (일본어)

01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 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 실태 기초 조사 (端島炭鉱での強制動員朝鮮人死亡者実態調査)	보고서
02	남양군도 지역 한인 노무자 강제동원 실태에 관한 조사 1939~1941년 (南洋群島への朝鮮人労務者強制動員実態調査 1939~1941)	
03	내 몸에 새겨진 8월 - 히로시마, 나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폭체험 (我が身に刻まれた8月 - 広島、長崎強制動員被害者の原爆体験)	구술 기록집
04	들리나요? 열두 소녀의 이야기 (聞こえてる? 日本軍「慰安婦」12人の少女の物語)	
05	사진으로 보는 강제동원 이야기 - 일본 홋카이도편 (写真で見る強制動員の話 - 日本・北海道編)	도록

“이 책들은 일본에서 꼭 읽혀져야 한다”

2012년 도쿄 국회의원 회관에서 40권이 넘는 보고서와 구술집을 처음 접했습니다. “강제동원 사실을 알리는 서적을 일본어로 번역해 일본에서 읽히도록 하자”는 아리미쓰 겐(有光健) 씨의 부름에 응했지만, 높이 쌓아올려진 책의 제목을 보고 ‘이 책들은 일본에서 꼭 읽혀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 자리에서 원폭과 관련된 2권의 번역을 수락했습니다.

생존자들과의 만남

다마모구미(玉藻組)에 동원된 서양식 옹의 이야기를 읽고 저희 모임에서 다마모구미의 존재를 밝혀낸 후 피폭자 수첩 취득을 도와드렸던 박홍규 옹 이외에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곧장 고훈군으로 찾아가 피폭자수첩 취득을 도왔습니다.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에 강제 동원된 김성수, 배한섭, 김종술 옹은 피폭자 수첩을 신청했지만, 후생연금 기록이 있던 김종술 옹 이외에는 ‘증거나 기록이 없다’며 각하되었습니다. 90세의 고령이라 재판은 피하고 싶었지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가사키 법무국이 공탁금 문서를 폐기했던 사실이 밝혀져, 2019년 1월 전면 승소하여 피폭자 수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제동원과 원폭 피해사실을 일본 사법부가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번역하기로 한 이들이 차례차례 그만두고

『히로시마·나가사키 조선인의 원폭피해에 관한 진상조사』 보고서는 2015년에 일본어판을 발행했지만, 『내 몸에 새겨진 8월』의 번역은 예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사투리와 구어체로 기록된 구술은 기계번역은 커녕 사전에도 없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함께 번역하기로 한 자원봉사자들이 차례차례 그만두고, 저를 포함한 7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다’는 정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아마추어 번역가인 저희가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어렵게 모은 번역 원고

를 다듬는 작업이 필요했지만, 앞서 말한 재판과 겹쳐져 완성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올바른 역사 제대로 알려지길

완성되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책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가 ‘완전한 동시에 최종적으로 해결된 상태’라거나 ‘식민지 국민은 일본인으로 동원되었다’는 식의 일본 정부의 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 책들을 통해 강제동원된 사람들이 같은 인간으로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 실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일본의 많은 젊은 이들이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동경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일본 여성들이 한국의 연애영화에 열광하다 그릇된 ‘역사 인식’으로 인해 너무 쉽게 돌아서버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언젠가 일본에서도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알게 된 후 양국이 건고한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가와이 아키코 씨(사진 가운데), 나가사키지방법원에서 심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원폭 피해자 이관모, 김성수 옹과 함께(2018. 6. 26., 후쿠오카공항)

글 | 한국 원폭 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모임 회원
가와이 아키코(河井章子)

번역·감수 | 재단 김희근, 이병희

“ 전범이 되어버린 조선 청년의 기막힌 사연을 아시나요? ”

출처 : KBS뉴스 95세 전범의 마지막 회견... “나는 강제징용 피해자입니다.”,
한국인 BC급 전범 이학래 회고록 “전범이 된 조선청년 이학래”

태평양 전쟁 때,
연합군 포로감시원으로 강제동원되어
전범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
전범으로 낙인찍힌 조선인들은
가석방 이후 정신병에 시달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연합뉴스 “태평양전쟁 한국인 전범 마지막 생존자 ‘일본 보상’ 촉구”

①

또한
‘친일 부역자’라는 눈총을 받아오던
한국인 B, C급 전범들은
60여년이 지난
2006년에야 비로소,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네이버 책 “전범이 된 조선청년”

②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강제동원 시켰던
일본 정부에 **60년이 넘는 시간**동안
‘피해자’로서 명예회복과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60년 넘게 일본정부와 현재까지
투쟁하고 계신 **동진회의 유일한 생존자**이신
“이학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③

이학래 할아버지는
17세 때인 1942년 일제에 징집돼
태국과 미얀마를 잇는
다이엔 철도 건설 현장에서
포로감시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종전 후 연합군 포로를 학대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0년으로 감형돼 복역하다가
1956년에 가석방되었습니다.



<NHK 플러스> ⑤

올해, 95세의 나이로
이학래 할아버지는
마지막일지도 모를 기자회견에
나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동료들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습니다.
명예를 꼭 회복해 주고 싶습니다.”

⑦

한반도 출신
당시 조선인 **148명**이 태평양전쟁
전범으로 분류돼 **23명**이 **사형**을 당했고,
이 분들 중 이학래 할아버지는
현재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일본인 전범은 일본 정부가 지급한
연금과 위로금 등을 받았지만,
이학래 할아버지를 비롯한 한국인 전범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일본 국적을 상실해 **일본 정부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④

전범이 된 사람들과 그 유족들은
1955년에 **동진회**를 결성하고,
그 후 연합군 포로를 대상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가해**’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는 ‘**가해자**’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태평양전쟁 한국인 전범 마지막 생존자 ‘일본 보상’ 촉구” ⑥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일제에 의해 전범이 되어버렸던 그들...

현재까지도 동진회 회장인
이학래 할아버지는
일본 정부에 보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⑧

강제동원 현장 오륙도 ‘장자등 포진지’



소식지 FoMo의 재창간을 앞두고 새로운 콘텐츠를 생각하던 중에, 새해도 되었고 하니 인근에 있는 강제동원지의 새해 일출을 사진으로 담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집 회의에 참석한 모두가 흔쾌히 찬성해 주어 처음 목적지를 부산 남구 이기대자연공원 내의 ‘황동탄광’(구리광산)으로 선정했다.

다만 걱정되었던 것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하여 일출·일몰 명소들은 모두 접근 금지 상태였던 것이다. 그래서 고민 끝에 ‘헌 해면 어떻게 새 해면 어때? 새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새해지리’는 생각에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일출을 사진으로 담기로 했다.

새벽 6시40분, 10분정도 차를 몰아 도착한 이기대자연공원 해안산책로에는 벌써 갓뿔이가 보이려 하고 있었으나, 역시나 2020년 12월 24일부터 해안산책로 전체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급히 인근의 ‘오륙도 장자등 일본군 포진지’로 발길을 돌렸다.

서둘러 도착한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는 이른 시간임에도 공원 산책로를 산책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시간에 맞춰 포진지에서의 일출을 사진에 담으려 마음줄이며 다급하게 포진지의 흔적을 찾았으나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았다.

마침내 부산 남구청에서 2009년에 설치한 수직 갱구를 찾았다. 하지만 당시 포진지 입구를 표시했던 안내판은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처럼 어딘가 한구석이 아픈 듯, 내용도 다 지워진 채 기우뚱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부산 남구청이 오륙도 일대의 일제강점기 유적들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소식을 들은 기억이 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모습은 그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듯 보여 안타까움이 컸다. 또 한편으



오륙도 장자등 포진지 일출



오륙도 장자등 일본군 포진지 입구 모습



이기대 해안산책로 입구 - 출입금지

로는 이렇게 지척에 두고도 그간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말장게 떠오르는 2020년의 마지막 해를 바라 보며 강제동원의 역사와 그 흔적들을 잊지 않겠노라고, 꼭 기억하겠노라고 장자등 포진지에 사과하며, 내자신에게 다짐했다. 또 이제부터는 강제동원 유적지들을 더 관심있게 둘러보고 어떡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흥미롭게 소개할 수 있을지,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발길을 돌렸다.

일본군 장자등 포진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오륙도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한 ‘장자등 일본군 포진지’는 1930년도에 완공되었으며 높이 3m, 내부 길이 45m, 연면적 1,652m² 규모의 거대한 지하 요새다. 1924년부터 약 600여 명의 조선인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 공간은 1개 대대가 주둔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 최대 사거리 30km가 넘는 구경 41cm의 포대 2문이 배치돼 일대 해상 전력의 핵심 역할을 하였으며 종전 이후 미군이 포대를 해체한 뒤 인근 주민들에 의해 젓갈저장고로 활용되는 등 사실상 방치되어 왔었다. 부산 남구는 2009년 장자등 일본군 포진지를 역사학습체험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용역조사를 하였으나 재원확보에 실패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 출처 - 부산일보 : 용호동 일본군 포진지 찾은 日사학자 2016. 2. 21. >

글 | 역사관 안지훈

#아이와 가볼 만한 곳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아이와 우리 역사 배우기

역사관 방문기
블로그 포스팅



무더위가 한창이었던 지난 8월 말, 아이와 함께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을 다녀왔습니다.

근처를 오가며 매번 ‘꼭 가봐야지’ 하다가도 들어가는 입구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그냥 지나치고 말았던 역사관.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더위도 식힐 겸 들른 곳에서 아이와 함께 기대 이상으로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절로 숙연해지는 입구. 기억의 터널을 따라 그들과 함께 걸어보게 됩니다. 아이는 입장부터 흘러나오는 목소리, 화면에 나타나는 글귀들에 발이 안 떨어지는지 한참을 보고 서있더군요. 민족 말살 정치 중 하나였던 창씨개명. 사진을 보며 아이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이 어찌하여 창씨개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아이의 넓은 전시실을 차분히 돌아보고 강제동원과 관련된 설명이 나오는 전자 책자를 한참



이나 읽고 있기도 하고, 뼈아픈 우리의 역사가 담긴 군함도를 보며 어떻게 이런 장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애기하더군요. 독일은 메모리얼파크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과거를 인정하려하는데 왜 일본은 그렇지 못하는지에 대해 가슴 아픈 부분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초등 4학년인 아이에게는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차일피일 미루며 선뜻 나서지 않았던 것이 엄마의 노파심이고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시관 곳곳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들을 비롯하여 중간 중간 볼 수 있는 영상 속에서도 그 날의 아픔이 시리게 와 닿았지만 특히나 철창으로 표현되어 갑갑한 마음이 더했던 공간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4F 상설전시실을 관람 후 피해자, 기증자 기념공간을 지나 5F 상설전시실에 도착하면 생생한 현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기록을 중심으로 전시된 4층과는 달리 5층의 전시실은 너무도 생생해 흠칫 놀라게 되고, 가슴 아파 절로 고개가 떨거지며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느끼게 되는 듯합니다. 가혹한 노동이 일상이었던 탄광의 모습. 입구의 으스스한 공기가 좋지 않았던지 아이가 발걸음을 멈춰 버립니다.

“꼭 보지 않고 가도 돼.” 라고 얘기했지만, 아빠 손을 잡고는 함께 보겠다는 아이. 몸 하나 자리 잡기 힘든 공간에서 그들이 종일 겪어야 했던 고통의 노동.

“나을 때 성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몇 안 돼.” 라는 말에, 군함도에서 보았던 영화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어느 곳보다 발길을 들여놓기조차 쉽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소. 그저 아이 손을 잡고 지

나쳐버리고 싶었던 곳이지만, 소녀상을 비롯해 뉴스에서 보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을 해줍니다. 아이는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말이에요. 무겁기만 한 마음을 안고서 나선 길에 만나게 되는 5층 홀의 가운데를 잇는 다리. 아픈 마음은 잠시 잊고, 반짝거리는 불빛이 참으로 아름다워 잠시 머물러 봅니다.

역사관을 돌아보며 이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여 완공한 곳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초등 저학년에게는 다소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고학년 이상 학생과의 방문을 추천 드립니다.

글·사진 | 블로거 알프스하이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봄날, 아이들과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과 자율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적인 곳을 방문하기로 하고 여러 박물관 및 기념관을 알아보던 중, 아이들의 추천으로 대연동에 있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을 방문하게 되었다.

역사관의 건물 모양부터 예사롭지 않았는데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옛날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오가던 부관연락선의 모양을 본떠 지었다고 한다. 역사관 건물 자체로도 큰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

4층부터 전시를 관람하였는데 첫 번째로, 까불던 남자아이들도 조용하게 만들었던 ‘기억의 터널’을 지나게 되었다. 강제 동원된 징용자 분들의 목소리가 들려와, 천천히 들으며 걸으면 어쩐지 울컥하는 마음이 샘솟았다. 제국주의와 일제의 강제 동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자료 전시를 보고, 도표와 연표를 꼼꼼히 읽으며 나도 모르게 일제의 만행에 아이들과 함께 분노하고 만다.

5층으로 올라가면 일제의 강제 동원 중 ‘탄광’, ‘위안부’ 생활의 모습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었다.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일제 강제 동원의 만행(우키시마 호 폭침 사건-일제가 해방 이후 조선으로 돌아가는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을 태운 배를 폭파하여 증거를 인멸한 사건)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자라나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수많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분들의 사진 아래서 관람을 마치며 아이들과 다짐했다. 아픈 역사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고 되새겨 이러한 잘못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자고, 잘잘못을 끝까지 기억하고 따져 가해자가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세상이 오게 하자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봄날, 꼭 한번 아이들과 다시 방문하여 일제 강제 징용의 피해를 기억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글 | 교사 조희숙

역사관 방문기 참여안내

역사관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나눠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정치적 간섭 피하러 정부지원없이 시민의 힘으로 운영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岡まさはる記念長崎平和資料館



“일본의 침략과 전쟁의 희생자가 된 외국인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버림받아왔다. 일본이 가해의 역사를 숨겨왔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는 무책임은 국제적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다.” - 오카 마사하루

설립 設立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은 1995년 10월 1일 전후 50년의 해에 설립되었습니다. 오카 마사하루 씨는 루터교 목사로, ‘나가사키 재일 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의 대표이며 나가사키 시의회 의원도 3번을 지냈습니다. 오카 마사하루 씨는 시민들에게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의 가해 사실을 알리기 위한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의 설립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994년 7월 21일에 오카 마사하루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그의 유지를 이어 받아 ‘나가사키 재일 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의 대표 타카자네 야스노리 씨를 중심으로 시민들은 평화자료관을 설립하였습니다.

岡まさはる記念長崎平和資料館は、1995年10月1日、戦後50年の年に設立されました。ルーテル教会牧師で、長崎在日朝鮮人の人権を守る会代表、長崎市議会議員も3期務めた岡正治氏が、一人ひとりの市民に過去の植民地支配と侵略戦争の加害の事実を知ってもらうための資料館が必要だと長崎平和資料館の設立を提唱されました。しかし、1994年7月21日に急逝され、その後、岡氏の遺志を継ぎ、長崎在日朝鮮人の人権を守る会の代表に就任した高實康稔氏を中心に市民の手で設立されました。

설립취지 設立の趣旨

일본의 침략과 전쟁에 희생된 외국인들은 전후 50년이 흘렀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일본 이) 가해의 역사를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만큼 국제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평화자료관은 일본의 무책임한 행태를 고발하는 데 생애를 바친 고(故) 오카 마사하루 씨의 유지를 이어받아,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일본의 가해책임을 알리고자 시민들의 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를 떠맡은 사람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우리 자료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해의 진실을

알고 동시에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하루라도 빨리 전후보상의 실현과 비전(非戰)의 맹세를 하기 위하여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日本の侵略と戦争の犠牲となった外国の人々は、戦後50年たっても何ら償われることなく見捨てられてきました。加害の歴史は隠されてきたからです。加害者が被害者にお詫びも補償もしないという無責任な態度ほど国際的な信頼を裏切る行為はありません。この平和資料館は、日本の無責任な現状の告発に生涯を捧げた故岡正治氏の遺志を継ぎ、史実に基づいて日本の加害責任を訴えようと市民の手で設立されました。政治、社会、文化の担い手は、たとえ小さく見えようとも一人ひとりの市民です。当館を訪れる一人ひとりが、加害の真実を知るとともに被害者の痛み思いを馳せ、一日も早い戦後補償の実現と非戦の誓いのために献身されることを願ってやみません。

전시내용 展示内容

①조선침략·중국침략 ②일본은 아시아에 무엇을 하였는가 ③조선인 강제연행, 중국인 강제연행 ④한국·조선인피폭자, 중국인피폭자 ⑤황민화, 황민교육 ⑥일본군‘위안부’문제 ⑦난징대학살 ⑧731세군부대 ⑨전후 보상을 거부하는 일본 ⑩탄압에 저항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 ⑪「나가사키 평화자료관 (長崎平和資料館)」의 설립을 주장한 「오카 마사하루 기념 코너」 ⑫자료관의 설립·발전을 위해 힘쓴 타카자네 야스노리 씨(高實 康稔) ⑬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 지를 묻는 코너) 등

①朝鮮侵略・中国侵略、②日本はアジアで何をしたのか、③朝鮮人強制連行、中国人強制連行、④韓国・朝鮮人被爆者、中国人被爆者、⑤皇民化、皇民教育、⑥日本軍「慰安婦」問題、⑦南京大虐殺、⑧731細菌部隊、⑨戦後補償を拒む日本、⑩弾圧に抵抗し、戦争に反対した人たち、⑪「長崎平和資料館」の設立を提唱した「岡正治記念コーナー」、⑫資料館の設立・発展のため尽力した高實康稔さん、⑬そして、いま私たちは・・・（どう考え、どう行動すればよいか問いかけるコーナー）など。

주요활동 主な活動

희망하는 방문자·단체에 대한 안내 및 강연, 역사인식 고취와 설립 취지 달성을 위한 강연회 및 상영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중일 우호 희망의 날개’, ‘배움의 여행’ 등 중국과 한국 등에 학생을 파견하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26일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학교교류협정도 체결하였습니다.

希望する入館者・団体に案内や講話、フィールド・ワークを行うとともに、歴史認識を深め、設立の趣旨を達成するために適宜、講演会や上映会などを開催しています。また、「日中友好・希望の翼」や「学ぶ旅」など中国や韓国などへ学生を派遣する事業を実施しています。2018年2月26日には日帝強制動員被害者支援財団と学術交流協定を締結しています。

운영 運営

설립 취지에 찬성하는 회원(약 190명)과 자원봉사자 (40명 이상), 기부금 등 시민들의 헌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소 : 850-0051 長崎県長崎市西坂町9-4 TEL : 095-820-5600 FAX : 095-820-5600
Email : tomoneko@ngs1.cncm.ne.jp 홈페이지 : https://www.okakinen.jp

設立の趣旨に賛同する会員 (約190人) や無償ボランティア (40人超) 、寄付金など一人ひとりの市民の献身によって支えられています。
住所 : 850-0051 長崎県長崎市西坂町9-4 TEL : 095-820-5600 FAX : 095-820-5600
Email : tomoneko@ngs1.cncm.ne.jp ウェブサイト : https://www.okakinen.jp

글 | 이사장 사키야마 노보루 理事長 崎山昇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대연동 산 204-1) 10:00 ~ 18:00
Tel 051 629 8600 Fax 051 629 8619
Homepage <http://museum.ilje.or.kr>



설립 목적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실상을 규명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인권과 세계평화에 대한 국민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역사관의 목표

‘유족을 위한 **추도, 기념시설**’이자
‘일제 강제동원 **역사교육 공간**’과
‘지역 주민의 친환경적인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UN기념공원을 중심으로 착공된
UN평화기념관과 함께 UN평화문화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 일대가 **평화와 인권의 역사를 기억하고 체험**하는
역사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사관 로고의 의미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National Memorial Museum of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Occupation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건물 모양**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디자인. 일제강점 하의 모든 역사가
집약된 공간인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자체가
역사적인 증인이자, **흔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역사관대학 'FoMo 학당' 일제강점기와 강제동원

2021학년도 1학기

- 기간 : 2021. 4. 7. ~ 6. 9. (매주 수요일 15:00~16:30)
- 대상 : 누구나 / 50명 *코로나19확산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장소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6층 멀티미디어실
- 주제 : 일제강점기와 강제동원
- 차수 : 총 8강좌 (각 90분)
- 참가신청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역사관대학 등록 후 6강좌이상 수강시 소정의 수료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잔여석에 한해 현장접수가 가능하며, 강의는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수강료 : 무료 • 문의 : 051) 629-8600, 8616

세부일정

< 일제강점기 >

강연자	소속	주제	
배병욱	동아대학교	일제의 조선침략과 낭인들	4.7.(수)
하지영	동아대학교	일제시기 바닷길-관부연락선	4.14.(수)
정계향	울산대학교	재일조선인의 탄생과 차별의 역사	4.21.(수)
강정원	부산대학교	일제강점기 농업과 농민의 삶	4.28.(수)

< 강제동원 >

강연자	소속	주제	
허광무	강제동원&평화연구회	아시아태평양전쟁시기 일본지역 한인 노무동원	5.19.(수)
정혜경	강제동원&평화연구회	사할린에 강제동원된 한인	5.26.(수)
정영민	경남 MBC	남양군도의 조선인	6.2.(수)
김윤미	부경대학교	국내 강제동원의 현장과 이야기	6.9.(수)

주최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National Memorial Museum of Forced
Mobilization of under Japanese Occupation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FoMo나 역사관에 바라는 점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역사관 대표 이메일(museum@ilje.or.kr) 혹은 역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역사관의 기록이 됩니다.

기억과 기록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 수집

- 증언대상 : 국내·외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 증언방법 : 피해자 방문 인터뷰
- 문 의 처 : ☎ 051) 629-8600

※ 피해 생존자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대연동 산 204-1)

Tel. 051 629 8600 Fax. 051 629 8619 Homepage <http://museum.ilje.or.kr>